

공개용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9호)

2025. 4. 24.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5-8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9호

조 사 건 명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원심)

신 청 인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K-Tower 7, 8층
대표자 박 원 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영진, 김성중, 공인회계사 조노석

피 신 청 인 1)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HS 코드 : 2831.10.1000

의 결 일 2025. 4. 24.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진허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15%
 - 마오밍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97%
 - 그 밖의 공급자 : 33.97%

1) 각 피신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 유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이하 “신청인”)이 2024.10.14.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12.18.)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I. 배경

신청인은 2024.10.14.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항을 2024.12.18.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1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진허', '마오밍'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주식회사 다부씨엔에스, 주식회사 태경씨엔, 주식회사 대영화공, 주식회사 청원물산, 주식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 티에이케이텍스타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산업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20호(2024.12.1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2831.10.1000이다.

예비조사보고서²⁾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가성소다³⁾, 개미산소다⁴⁾, 액체무수아황산⁵⁾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⁶⁾, 건조하여 제조하는, $\text{Na}_2\text{S}_2\text{O}_4$ 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차아황산소다의 농도⁷⁾는 불문한다.

2) 예비조사보고서 p.3 참조

3) 가성소다(NaOH) :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며, 수용액을 순수리말로는 양젯물이라 함.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이라고도 불리며, 수용액은 무색 무취의 강한 알칼리성을 지니고 있음. 기초화학제품으로, 섬유, 비누, 제지, 식품, 전자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4) 개미산소다(HCOONa) : 영문명은 Sodium Formate 이며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흡습성이 있어 물에 녹이기 쉬우며 에틸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음. 용도로는 귀금속용 침전제 분석, 수렴제, 식물 염색 및 인쇄, 전기도금제 등에 사용됨.

5) 액체무수아황산(L-SO_2) : 유황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화학물질로서 섬유 및 펄프의 표백제 및 착색제 제조시 사용되며, 식품첨가, 전분제조, 자동차 주물틀 정화 등에 사용됨.

6)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이 섭씨 80도 가량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결합하여 차아황산소다가 합성되며,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7) 일반적으로 한국에 유통되는 제품은 차아황산소다 농도가 85% 이상임.

2. 국내 동종물품

가.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⁸⁾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이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나.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예비조사보고서⁹⁾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 측에서는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국내생산품을 선호하며, 수요자들은 고품질·고견뢰도를 요하는 염색가공(나염, 사염, 실켓소재 염색 등)에는 동종물품을 사용하고, 저품질 작업(기계세척, 화학섬유 염색, 면방 염색 등)에는 조사대상물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상호대체 사용되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8) 예비조사보고서 pp.5-7 참조

9) 예비조사보고서 pp.6-7 참조

이에 대하여 신청인 측은 조사대상물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식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되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특정 화학식을 보유한 동일한 차아황산소다이며, 섬유 염색시 사용되는 역할 및 용도는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동일하고 최근 중국산의 품질 향상으로 동종물품과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차이를 이유로 두 물품이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조사 과정에서 수입자가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차이로 인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동종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기하는 경우 동종관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산업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¹⁰⁾를 기준으로 동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이 국내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내생산자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했는지 여부, 국내생산자가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나.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예비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 측은 신청인이 직접 수입한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수입자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을 공급받아 일부 판매했다면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예비조사보고서 pp.9-11 참조

11) 예비조사보고서 pp.10-11 참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반덤핑조사 신청 자격에 결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가동률 및 생산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국내 수입자로부터 구입하여 일부 혼합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국내수입자를 통한 구매는 2022년 1분기가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국내산업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국내생산자인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직접 또는 국내수입자를 통해 수입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 유일의 동종물품 생산자임이 당해 산업의 주무부처로부터 확인¹²⁾되어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이 2023년 국내 총생산량의 전부를 차지하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국내 유일의 동종물품 생산자로서 국내 총생산량의 100%를 점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범위를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판단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1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반덤핑조사신청서 관련 의견 회신(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1441, 2024.11.08.)

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¹³⁾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 요청자료가 공개 되는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13) 예비조사보고서 pp.15-18 참조

IV. 덤프사실

위원회는 덤프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프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프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진허’)',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마오밍’)'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신청기간¹⁵⁾ 동안 당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¹⁶⁾에 따른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한 공급자는 없었다.

2. 덤프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¹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12.20. 덤프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 (답변기한 : 2025.1.31.)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14) 예비조사보고서 p.19 참조

15)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4. 12. 20. ~2025. 1. 10.

16) “(전략) 부당하게 당국에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프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대응이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17) 예비조사보고서 p.19 참조

진허는 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025.1.10.)하여 조사에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진허는 2025.1.23. 질의서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당초 2025.1.31.이었던 답변기한을 2025.2.3.로 연장 통보하였다. 이후 진허는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오밍은 조사참여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미대응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25.4.18.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등 덤핑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¹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옌타이시(Yantai)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 겸 판매자이다.

18) 예비조사보고서 p.20 참조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진허와 진하이의 지분 xxx%를 xxxxxx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⁹⁾

진허의 조사대상기간 중 총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²⁰⁾),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이며 대한민국 수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이다.

진허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 생산하였고 관계사 xxx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xxx, xxx의 일부를 구매하였다. 내수판매 중 약 xxx톤을 관계사 진하이에게 판매하였고 수출판매는 비관계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진하이의 조사대상기간 중 총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이며 대한민국 수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이다.

진하이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 생산하였고 관계사 xxx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xxx의 일부를 구매하였다. 내수판매 중 약 xxx톤을 관계사 진허에게 판매하였고 수출판매는 비관계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조사실은 진허 및 진하이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하였다.

19) 예비조사보고서 pp.20~21 참조

20) 우리은행 2023년 평균매매율 184.54원/위안화 적용

21) 예비조사보고서 p.23 참조

또한, 조사실은 진허 및 진하이를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여 단일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 덤핑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원가 자료의 경우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비용의 적정 시장가격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생산원가를 활용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제조원가의 xxx%를 차지하는 포장비 관련, 포장재료의 관계사 구매 여부, 적정 시장가격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보충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기간 산정과 관련한 사항, 제조원가 관련 제품코드 분류방법 및 CCN 매칭 방법, 판매관리비 배분의 적절성 등도 본조사를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예비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CCN) 구성방법으로 등급, 농도, 입자크기를 제시하였다.

22) 예비조사보고서 p.24 참조

조사실은 피신청인에게 CCN 안내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제시 기회²³⁾를 가졌으며, 피신청인이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물량인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며, CCN별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이 없어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관계사에 판매한 조사대상물품 xxx톤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²⁶⁾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사간 거래 및 재판매가 이중으로 덤핑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23)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4) 예비조사보고서 p.25 참조

25) 예비조사보고서 p.25 참조

26) 조사실은 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 대비 xxx%(진허), xxx%(진하이)로 조사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조사실은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위해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및 특수 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²⁷⁾를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내수판매 CCN의 원가미만 판매비율은 xxx%~xxx%로 원가미만 판매물량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하여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xxx의 비용이 정상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실의 검증에서는,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xxx의 가격이 관계사의 생산원가보다 낮아 관계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활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판매관리비에 대한 합리적 배분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매관리비에서 영업외수익을 제외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포장비용이 제조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투입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용²⁹⁾,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방식³⁰⁾ 등 질의서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합리적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정상가격 조정요소에서 포장비용을 제외하였다.

27)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28) 예비조사보고서 p.26 참조

29) 질의서 G-2. 일반사항 중 g-1. 주요 투입요소별 일반 정보, g-2.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의 정보

30)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 방식,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

이에 따라, 예비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조사실은 CCN별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신용비용을 조정요소로 사용한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덤핑가격 산정 시,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덤핑가격 조정 시에는 조사신청물품이 증치세³²⁾ 환급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덤핑가격에서 증치세율(13%) 만큼을 조정요소로 적용하였다.

또한, 증치세 외에도 내륙운임, 핸들링 비용, 해상운임, 신용비용, 포장비용 등을 덤핑가격의 조정요소로 적용하여 CCN별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³³⁾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³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³⁵⁾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CCN별 덤핑률을 산정하고 CCN별 대한민국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하여 피신청인의 덤핑률을 15.15%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31) 예비조사보고서 p.27 참조

32) 증치세는 중국 내 재화나 용역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금임.

33) 예비조사보고서 p.28 참조

34) 예비조사보고서 p.28 참조

35)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나.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마오밍은 조사실에서 요청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이와 관련,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덤핑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는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비용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인 조사신청서의 자료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른 2차적인 출처로 판단하였다.

36) 예비조사보고서 p.29 참조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덤핑률 산정에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의 자료를 사용한 조사실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다.

예비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CCN) 구성방법으로 등급, 농도, 입자크기를 제시하는 CCN 안내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의견제시 기회³⁸⁾를 부여했으나 피신청인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다.

조사실은 조사신청서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구성가격³⁹⁾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제조원가는 원재료비(가성소다⁴⁰⁾, 이산화황⁴¹⁾, 개미산소다⁴²⁾), 간접재료비⁴³⁾, 에너지 비용(전기⁴⁴⁾, 스팀⁴⁵⁾), 인건비 및 제조경비⁴⁶⁾를 적용하였다.

37) 예비조사보고서 p.29 참조

38)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9) 시장조사기관 및 구매견적 등을 통해 산출한 주요 원재료의 제조원가와 중국 생산자의 판매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출

40) 중국 xxxxxx의 가성소다에 대한 구매견적

41) 시장조사기관인 xxxxxx에 공시된 중국내 2023년 4, 7, 10월 이산화황의 평균가격. xxxxxx...

42) 중국 xxx, xxx의 개미산소다 가격에 대한 구매견적

43) 중국 xxx의 냉연강판 포장캔에 대한 구매견적

44) 주요 생산자가 위치한 지역(Anhui, Hubei, Zhejiang)의 2023년 1~12월 기간동안의 평균 전력 비용

45) 주요 생산자가 위치한 지역(Anhui, Hubei, Zhejiang)의 2023년 1~12월 기간동안의 평균 스팀 비용

46) 신청인의 2023년 톤당 인건비 및 제조경비에 xxx에서 공시된 2023년 중국-한국의 제조업 임금 비율을 환산한 비용. xxxxxx...

판매관리비 및 이윤은 중국 생산자⁴⁷⁾의 2023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원가 대비 판매관리비용 및 영업이익률⁴⁸⁾을 적용하였다.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는 조사신청서의 내륙운임⁴⁹⁾을 적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023.1.1~12.31.) 동안 수입신고된 피신청인 수출물품의 평균수입가격을 덤핑가격⁵¹⁾으로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덤핑가격의 조정요소로 증치세와 신청인이 비관계사에 견적의뢰한 해상운임⁵²⁾, 통관하역비⁵³⁾, 내륙운임⁵⁴⁾을 적용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⁵⁵⁾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023.1.1~12.31.) 동안 수입신고된 피신청인 수출물품의 평균수입가격(XXXRMB/톤)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다.

47) xxxxxx

48) 영업이익률 = (영업총수입 - 영업총원가) / 영업총원가

49)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까지에 대해, 신청인이 비관계사인 xxxxxx에 견적의뢰한 운임단가

50) 예비조사보고서 p.32 참조

51) 수입통관자료를 통해 산출된 평균 수입단가(XXXUSD/톤)에 2023년 연평균 환율(7.08RMB/USD)을 적용하여 덤핑가격을 산출함

52)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에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의 해상운임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53)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선적시 발생하는 통관하역비 등의 부대비용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54)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까지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55) 예비조사보고서 p.33 참조

이에 따라,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피신청인의 덤핑률을 33.97%로 산정⁵⁶⁾하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조사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2 제1조, 제7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4조제5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바, 이에 따라 산정한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다.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⁵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33.97%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56) 예비조사보고서 p.33 참조

57) 예비조사보고서 p.33 참조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덤핑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이 동종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 시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 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예비조사보고서⁵⁸⁾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10.1% 증가, 2022년 xxx톤으로 8.1% 증가했다가, 2023년 xxx톤으로 21.3%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증감율이 -1.6%로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의 절대적 양은 다소 감소(연평균 -1.6%) 감소하였으나, 국내소비(연평균 -5.0%)보다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연평균 -7.3%)은 국내소비 및 덤핑물품 수입물량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3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였으며, 특히 2022년과 2024년 상반기는 국내 소비가 각각 1.0%, 4.9% 감소했음에도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오히려 증가(2022년 8.1%, 2024년 상반기 4.0%)하였고,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감소(2022년 -5.2%, 2024년 상반기 -11.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5.5%p 상승하였다.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를

58) 예비조사보고서 pp.38-40 참조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5.7%p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 2022년 xxx%로 하락하였다가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상승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실은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일부 수입자는 2022년 덤핑물품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2022년 2,896톤에서 2023년 2,280톤, 2024년 2,194톤으로⁵⁹⁾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24년 차아황산소다의 전체^(덤핑물품+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307톤이며, 2025년 3월 수입량도 234톤⁶⁰⁾으로 1월 162톤, 2월 109톤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2년 수입량 증가가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총 수입물량은 2,307톤이며, 이 중 덤핑물품 수입량은 2,194톤으로 2023년 수입량 2,280톤에 비해 다소 감소(-3.8%)한 것은 사실이나, 예비조사보고서⁶¹⁾ 'Ⅲ.2.나.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검토하였다.

59)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TRASS

60)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TRASS 잠정치 조회

61) 예비조사보고서 pp.38-39 참조

2.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예비조사보고서⁶²⁾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30.7%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48.0% 상승하였다가, 2023년 xxx천원으로 32.8%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4%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1.1%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18.8% 상승하였으나, 2023년은 xxx천원으로 1.1%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4%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그 가격차이는 2020년 - xxx천원, 2021년 - xxx천원, 2022년 - xxx천원으로 차이가 줄어들다가, 2023년 - xxx천원, 2024년 상반기 - xxx천원으로 가격차이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비율을 보면, 2020년 덤핑물품은 동종물품 대비 xxx%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2021년 xxx%, 2022년 xxx%로 가격비율이 올라가다가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62) 예비조사보고서 pp.41-45 참조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2023년 32.8% 하락, 2024년 상반기 9.9% 하락하면서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이 2022년을 제외하고는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점,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비중이 xxx%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동종물품 제조원가가 2022년 29.8%, 2023년 16.5% 급등하였으나 판매가격은 2022년 18.8% 상승에 그쳤고 2023년에는 오히려 1.1% 하락하여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점,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사실은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으로 국내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이에 따른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실의 영향으로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예비조사보고서⁶³⁾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 측은 2023년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은 코로나 해제로 인해 2020년 가격으로 원복된 사항이며, 2024년도 하반기 이후 중국의 경기침체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CIF가격 기준 2025년 1월 xxx천원, 2월 xxx천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63) 예비조사보고서 p.45 참조

이에 대해 신청인은 판매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수입자 측 주장은 원화로 환산한 가격, 즉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며, 2025년 3월⁶⁴⁾은 오히려 xxx천원으로 하락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3년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이 코로나 해제로 인한 것이라는 수입자 측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수입자 측이 주장한 2025년 1월, 2월 가격이 이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보다 인상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저가 수준이라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사실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3.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⁶⁵⁾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17.6%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톤으로 5.0% 감소, 2023년 xxx톤으로 34.6%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2.0%

64)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TRASS) 추정치 통계

65) 예비조사보고서 p.47 참조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10.8%p 상승하였고, 2022년 xxx%로 3.6%p 하락, 2023년 xxx%로 23.7%p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로 전년동기 대비 13.3%p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6.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⁶⁶⁾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1.8% 증가 후, 2022년 xxx톤으로 5.2% 감소, 2023년 xxx톤으로 18.6% 감소,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10.3% 감소 후,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0.1%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재고율은 2020년 xxx%에서 2024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39.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⁶⁷⁾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xxx%로 소폭 상승 후 2024년 상반기 xxx%로 다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5.7%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덩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66) 예비조사보고서 pp.47-48 참조

67) 예비조사보고서 p.49 참조

지속 상승하였고 2023년 xxx%로 소폭 하락 후 2024년 상반기 xxx%로 다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5.5%p 상승하였다. 이 외에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상승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동종물품의 점유율 하락분 (-5.7%p)의 상당 부분이 덤핑물품의 점유율 증가(5.5%p)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덤핑 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비조사보고서⁶⁸⁾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5.5% 하락 후, 2022년 xxx천원으로 29.8%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16.5% 상승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 하락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5.2%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재료비 비중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가장 커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는 2021년 1.9% 소폭 하락 후, 2022년 28.1% 급상승하였고, 2023년 6.3% 상승 후,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4%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 상승하였다. 한편,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023년의 경우 동종물품은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6.4%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쳤는 바, 덤핑물품이

68) 예비조사보고서 p.50 참조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⁶⁹⁾에 따르면, 조사실이 산정한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15.15~33.97%로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바. 이윤

예비조사보고서⁷⁰⁾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내수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2.9% 증가, 2022년 xxx백만원으로 12.6% 증가하였으나, 2023년 xxx백만원으로 19.5% 감소,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2% 감소하였다.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42.8%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백만원으로 25.6% 감소한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2.7%p 상승 후 2022년 xxx%로 3.3%p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9) 예비조사보고서 p.51 참조

70) 예비조사보고서 p.51 참조

사.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⁷¹⁾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로 상승했으나,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부(-)의 투자수익률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⁷²⁾에 따르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0년 -xxx백만원,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현금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⁷³⁾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xxx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xxx명으로 감소 후, 2024년 상반기 까지 xxx명으로 연평균 1.4%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3.3% 감소, 2022년 xxx백만원으로 10.9% 증가, 2023년 xxx백만원으로 15.0% 감소,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1) 예비조사보고서 p.52 참조

72) 예비조사보고서 p.52 참조

73) 예비조사보고서 p.53 참조

차.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⁷⁴⁾에 따르면 1인당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으로 증가했고, 2023년 xxx톤으로 감소,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 감소하였다. 1인당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 감소하였다. 1인당 부가가치는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상반기 -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⁷⁵⁾에 따르면 내수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xxx백만원으로 감소, 2023년 -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하락 추세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5.7%p 하락하였다. 가동률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6.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4) 예비조사보고서 pp.53-54 참조

75) 예비조사보고서 pp.54-55 참조

타.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⁷⁶⁾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자본조달능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은 2023년 이후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⁷⁷⁾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2024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비투자를 하였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2020년 xxx백만원,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4년 상반기는 xxx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 종합 검토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 및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실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76) 예비조사보고서 p.55 참조

77) 예비조사보고서 p.55 참조

절대적으로는 다소 감소(연평균 - 1.6%)하였으나, 국내소비 감소(연평균 - 5.0%)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5.5%p)한 데 비해,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5.7%p)하였는바,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하락 및 적자 지속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적자전환,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연평균 1인당 임금 하락 등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VI.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프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 덤프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프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프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프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예비조사보고서⁷⁸⁾에 따르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프물품 수입의 영향(물량 및 가격)과 덤프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덤프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연평균 - 5.0%) 덤프물품 수입량도 다소 감소하였으나(연평균 - 1.6%)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더 크게 하락(연평균 - 7.3%)하였고, 덤프물품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5.5%p)한 반면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5.7%p)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프물품은 동종물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 되었으며, 덤프물품의 판매가격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2020년 xxx% 수준에서, 2022년 xxx%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부터 xxx%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동종

78) 예비조사보고서 pp.58-59 참조

물품의 가격하락과 상승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2년을 제외하고는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동종물품 제조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저가에 판매되면서,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이 연평균 2.7%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은 6.4%p 하락하였고, 내수 영업이익 감소 및 적자전환, 투자수익률 및 현금흐름의 악화,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이상의 조사실 검토를 종합하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⁷⁹⁾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0.6%p 감소, 2022년 1.0%p 감소하였으나, 2023년은 0.6%p 증가, 2024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9) 예비조사보고서 p.61 참조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xxx배~xxx배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바,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으며,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나.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⁸⁰⁾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21년 4.3% 증가하였다가 2022년 1.0% 감소, 2023년 19.3% 감소,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0%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1년 1.8% 증가하였다가, 2022년 5.2% 감소, 2023년 18.6% 감소,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1.4.% 감소하였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연평균 -5.0%)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감소하였는데, 2021년 10.1% 증가, 2022년 8.1% 증가 후, 2023년 21.3% 감소하였다가,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여 국내소비 감소율보다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예비조사보고서 p.62 참조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감소(연평균 - 5.0%)하였으나,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국내소비 감소율보다 더 큰 폭(연평균 - 7.3%)으로 감소하였고, 덤핑물품 수입량은 국내소비 감소율 대비 낮은 수준(연평균 - 1.6%)으로 감소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소비의 변화가 동종물품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⁸¹⁾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30.9% 증가, 2022년 xxx톤으로 16.7% 감소, 2023년 xxx톤으로 37.2% 감소,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9%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다소 증가했으나 그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6.3%p 증가, 2022년 xxx%로 3.2%p 감소, 2023년 xxx%로 6.5%p 감소, 2024년 상반기 xxx%로 전년 동기대비 6.8%p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81) 예비조사보고서 p.63 참조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⁸²⁾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으로 주요 원재료는 개미산소다, 아황산, 가성소다로 조사되었다. 개미산소다의 톤당 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26.5% 하락하였다가, 2022년 xxx천원으로 21.0%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46.4% 상승 후,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0% 상승하였고, 아황산소다의 톤당 가격은 2020년과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62.2%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5.9% 하락 후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5%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1% 상승하였으며, 가성소다의 톤당 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3.9% 하락하였다가, 2022년 xxx천원으로 15.8%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3.8% 상승,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일부 (2022년, 2024년 상반기)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동폭이 재료비 변동폭 보다 작았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료비가 연평균 6.4% 증가한 데 비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증가에 그치는 등 원재료비의 상승분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82) 예비조사보고서 p.64 참조

마.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예비조사보고서⁸³⁾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 측은 2023년의 국내산업의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 악화는 차아황산소다의 주요 수요처인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와 대체재(환원제 N-RC, 티우레아디옥사이드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국내소비 감소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입자 측이 주장한 대체품들은 현재 국내 업체들이 조사대상물품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동종물품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3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재 성격의 섬유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원료인 차아황산소다의 소비도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연스러운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며, 해당 연도에 국내산업이 적자 상황에 직면한 주된 이유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실은 수입자 측이 주장하는 대체재로 인한 동종물품 판매량 변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소비 변화로 인한 영향은 예비조사보고서⁸⁴⁾ ‘IV.2.나. 국내 소비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대체재 및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 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83) 예비조사보고서 p.65-66 참조

84) 예비조사보고서 p.62 참조

바.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⁸⁵⁾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고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적자 상태가 유지되었고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내수판매량 하락, 투자수익률 및 현금흐름 악화 등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은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보다 작았으며, 주요

85) 예비조사보고서 p.66 참조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산업의 수출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덤핑물품 이외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VII.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⁸⁶⁾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 저가에 판매되며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생산량, 가동률, 영업이익 등 국내산업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별 예비덤핑률(15.15~33.97%)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86) 예비조사보고서 pp.69-71 참조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5년 04월 24일

위원장 이재형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양병내

위원 조영재

조영재

위원 강준하

강준하

위원 권현호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윤경애

위원 고준호

고준호

위원 현혜정

현혜정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붙 임 자 료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및 그 관계사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 Jinhe Industrial Park, No.1 Ancient Shanghai Street, Yantai Development Zone,
Shandong Province, China

(2)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 Resident of Xujiadian Town, Haiyang, Yantai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2.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 Rm. 401, Zhongzhi Nex-one, Rd. Long Guang,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